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05>

JCCT 2023-11-13

##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성찰-총체적 함의와 현대적 가치에 대한 고찰

### Confucius's reflections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 Consideration on overall implications and modern values

김점남\*

Jeum-Na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논어』 속 공자의 어록 중 자아성찰, 관계의 성찰, 감사와 행복의 성찰, 사회적 성찰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재해석되며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아성찰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감정, 생각과 행동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기회를 찾아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에 인간은 성찰을 통하여 성장한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성장하는 인격체로서 군자의 삶을 지향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생성형 AI와 공존하는 시대 공자의 성찰적 삶과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 가치지향, 성숙한 인간관계,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실현 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행복에 대한 성찰은 최선의 삶의 태도이다.

**주요어** : 논어, 공자, 자아성찰, 관계의 성찰, 감사와 행복의 성찰, 사회적 성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self-reflection, relationship reflection, gratitude and happiness reflection, and social reflection among the sayings of Confucius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re re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times and what meaning they contain today. Self-reflection is the process of considering one's identity, values, emotions, thoughts, and actions. Humans grow through reflection because they can identify their own problems, acknowledge their mistakes, fin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set a direction for the future. Confucius pursued the life of a gentleman as a person who constantly reflects on his life and grows. We classified it into the four categories presented above and examined them. In an era of coexistence with generative AI, Confucius' reflective life and teaching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values in modern society in terms of human-centered value orientation, mature human relationships, and continuous social value realization, and reflection on happiness is the best attitude to life.

**Key words:**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Self-reflection, Reflection on Relationships, Reflection on Gratitude and Happiness, Social Reflection

\*중신회원,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수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6,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jnkim@howon.ac.kr

Dept. of Aviation-Tourism, Howon Univ, Korea

## I. 서론

인간은 각각의 시대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변함없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오늘날 진화된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ChatGPT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면서, 이익과 편리함,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이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불균형과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중심 사상으로 사람됨의 교육을 지향하며 인격의 실현과 덕의 완성을 추구해야 할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던 성현, 성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를 시대를 초월하여 가르침을 주기에 『논어』 속 공자의 어록과 사상을 찾아서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성찰하고자 한다[1]. 『논어』는 공자의 언행과 그 제자들, 그들이 가르친 문인의 기록으로 문답을 기록한 유가의 경전이다. 공자의 기본 사유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공자 사후, 공자를 추종한 제자들의 저술이라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편 400장 12,700자로 구성된 책으로 각 편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공자의 말이나 인명에서 글자를 두자 또는 세 개 정도를 따서 편명(篇名)으로 삼았다. 내용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주로 일상적인 삶을 다루어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2].

공자(Confucius, B.C. 551–B.C. 479)는 유교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춘추시대 노(魯)나라, 오늘날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에서 부친 숙량홀과 모친 안징재(顔徵在) 사이에 태어났다. 공자의 일생은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에 공자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회로애락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3][4].

정치가 · 사상가 · 교육자로 종래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우리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었다. 인간에게 내재된 본선을 올바르게 구현한다면 인간은 올바른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일깨웠다. 공자는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로서의 예(禮), 올바른 가치판단으로서의 의(義), 인간의 보편적 본질로 존재하는 사랑으로서의 인(仁)을 강조하였다[5]. 군자(君子)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마침내는 성인의 삶을 이룬 공자[6]. 오로지 사람 속에서 사람의 길을 구하조자 한, 공자의 ‘인(仁)’의 사상은 ‘충서(忠恕)’로써 인간을 향한 보편적 사랑을 말한다[7].

사람은 삶과 앎의 합성어로, 앎과 삶이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인격자가 참 사람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인격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그래서 타인지 교화시키는 자가 유학에서 제시하는 군자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다.

인간의 이기적이며 무분별한 활동으로 지구온난화 피해의 사례가 급증하며 해수면이 상승,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상기후,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재산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들이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각 개인이 노력해야할 부분들에 대하여 성찰(省察)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찰은 살피고(省) 따져(察)보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의 모든 측면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며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찰의 본질이다[8].

성찰의 삶을 통해 반성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논어』에서 제시하는 군자의 상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자 사상의 핵심은 하늘의 크고 땅의 두터움을 사람 마음에 융합시키는데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사람은 비할 데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천지가 우리에게 부여함 힘을 일러 천일합일(天人合一)이라하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이루는 화목과 조화이다. 우리는 화목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 가정, 사회, 대지의 만물과 조화를 이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9].

본고에서는 『논어』에 나타난 자아성찰, 관계의 성찰, 감사와 행복의 성찰, 사회적 성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성숙한 인간관계,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실현 등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성찰 및 수양의 개념

#### 1) 성찰의 개념

성찰(reflection)은 “to bend back”이라는 뜻의 라틴어 “reflectere”에서 발생한 개념이다[10].

교육학에서 성찰의 개념은 Dewey의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부터 출발하였다[11]. 학자마다 각각 상이하게 성찰을 정의하고 있다. 주요 학자들의 성찰 정의를 종합해보면, 성찰은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 또는 속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이다. 학습(學習)의 한자에도 성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배울 학(學), 익힐 습(習)으로 이루어진 학습에서 성찰은 학의 과정과 습의 과정 모두에 관여한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축적하며,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충돌하기도 하고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며, 익히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획득된 지식이 적용되고 응용되며 변형되는 일이 일어나 체화된다. 깊게 각인된 체화된 지식은 습의 과정에 작동하는 성찰을 전제로 한다[12].

학의 과정과 습의 과정 모두에 성찰은 불박여 있다. 성찰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으로써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제의 역할을 한다.

## 2) 수양의 개념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각 개인이 노력해야 할 수양(실천)의 문제는 유가사상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므로 유가 철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수양방법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심도를 더하면서 사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유가철학의 실천방법인 수양방법의 문제는 오늘날 관심을 갖게 된 철학 치료와 매우 밀접하며 그 실마리를 유가철학의 수양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가철학은 일찍부터 육체와 정신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불가분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특히 개인과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이나 정치, 경제, 예술 등의 문화에 대한 사유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사유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평화에 있다 할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평화의 상태는 곧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13].

표 1-1. 논어에 나타난 성찰 분석

Table 1-1. Analysis of reflection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성찰 분류	항 목
자아성찰	7개 항목
관계의 성찰	5개 항목
감사 & 행복의 성찰	5개 항목
사회적 성찰	3개 항목

## III. 『논어』 속 공자의 성찰 어록 분석

### 1. 자아성찰

#### 1) 하루 세 가지로 자아 성찰

曾子曰：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論語』 「學而」 4

공자의 제자 증자께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을 성찰(반성)한다. 타인을 위해 하는 일에 충실하였는가? 주변 벗들(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의가 있었는가?, 배운 것을 실천(내 것으로 습득)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셨다[8].

우리들은 부지불식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고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에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 충(忠)은 타인과 조직, 사회에 충실(진실)하게 나의 능력을 다하는 것으로 직업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성찰이다. 신(信)은 팀웍을 발휘하여 주변인들과의 조화를 이루며 신뢰적 관계를 유지하였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습(習)은 배움을 통하여 변화하여 실천하며 성장하였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하루에 세 가지 항목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삼성이자다.

####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을 통한 성찰

子曰：已矣乎！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論語』 「公冶長」 26 공자께서 그만두어라! 나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며 탄식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허물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은 ‘나 중심적 사고’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모순점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자기성찰을 통해 성장한다.

3) 개선의 성찰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 『論語』 「衛靈公」

29 공자께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살면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다. 잘못은 고치면 되고, 잘못을 딛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8].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허물을 고치지도 않는다면 문제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 정직의 성찰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論語』 「雍也」 17

공자께서 사람은 하늘에서 생명을 부여 받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그 정체성을 부정하며 타인을 속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경우는 요행으로서 일시적으로 화를 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그 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요행으로 표현하며 사람의 삶은 본래 끈고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5) 변명의 성찰

子夏曰: 小人之過也必文 『論語』 「子張」 8

자하 말씀하시기를 소인(小人)들은 스스로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꾸미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명명한다. 반면에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군자라고 일컫는다.

6) 의문의 성찰

子曰: 不曰如之何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論語』 「衛靈公」 15 공자께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묻지 않는 자는 나도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학문이나 사유의 발전은 '왜'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변화와 발전의 출발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자답해보며 질문을 통해 성찰이 시작된다. ChatGPT의 시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활용도에 따라 찾고자 하는 답변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7) 균형. 중용의 성찰

過猶不及 『論語』 「先進」 15

자공의 질문에 공자가 답하면서 넘치는 것도 문제이고 모자란 것도 문제이다.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과욕을 부리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 관계에 대한 성찰

1) 인정에 대한 성찰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論語』 「學而」

16 공자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공감해주거나, 인정해 주면 상대방도 나를 알아주며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진다[14].

2) 만남의 성찰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論語』 「里仁」 17 공자. 어진 사람을 만나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안으로 자기를 되돌아본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 자신을 살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성찰

子曰: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 『論語』 「衛靈公」

14 공자께서 자신을 꾸짖기를 많이 하고 남을 꾸짖는 것은 적게 한다면 남의 원망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에게 엄하게 대한다면 원망을 사는 일은 줄어든다. 관계의 성찰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이익의 성찰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論語』 「里仁」 12

공자께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미움(원망)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를 것인가. 옳고 그름을 따를 것인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

아지면 세상은 각박해 질 수밖에 없다. 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닌다.

### 5) 전달의 성찰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論語』 「陽貨」 14  
공자께서,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덕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대중매체, SNS상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검증 없이 나누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거짓 정보제공을 통한 환각 현상, 법적, 윤리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검증 없는 왜곡된 정보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진위(眞僞)의 판단여부와 허위정보 전달에 대한 성찰 계기로 삼아야 한다.

## 3. 감사와 행복에 대한 성찰

### 1) 즐기는 삶에 대한 성찰

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論語』 「雍也」 18  
공자께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배움이나 일에 있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공자가 꿈꾸었던 최고의 삶은 즐기는 삶이다. 열정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 2) 산처럼 물처럼 과욕부리지 않는 삶에 성찰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論語』 「雍也」 21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조용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치에 밝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만물의 이치를 동적으로 움직이는 물에서 깨닫는다. 인자한 사람은 하늘의 도를 배우며 변함없는 산과 같은 존재로 의로움을 따라야 한다.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삶, 물질적인 욕구에 집착하

지 않는 인자함은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산처럼 물처럼 그대로의 본성에 따르며 과욕 부리지 않고 산다면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다.

### 3) 곤궁함속 편안함에 대한 성찰

安貧樂道 『論語』 「雍也」 9  
공자께서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서 곤궁하게 살면서도 인을 실천하는 제자 안희에 대한 칭찬을 하셨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서 찾는 것이므로 부와 상관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9]. 한편 오늘날 물질적 요소(돈)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 역할을 한다.

### 4) 음악으로 힐링하는 성찰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曰 "不圖爲樂之至於斯也  
『論語』 「述而」 13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소(韶)'음악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한다. 음악이 이렇게 즐거운 경지에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자는 시를 알고 예를 존중하며 음악을 이해하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 5) 호학(好學)으로 힐링하는 성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論語』 「學而」 1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문(文)을 배워서 늘 쉬지 않고(時) 반복하여 몸에 익히면 진실로(亦) 기쁘지 않겠는가? 공부하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치 중심의 교육방법의 길을 제시한다[15]. 배움에 대한 열정, 열렬함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서 나갔다. 벗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이다. 배움과 익힘을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기쁨을 느꼈다면, 친구와 함께 기쁨을 공유하여 즐거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였

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선택이다.

#### 4. 사회적 성찰

##### 1) 권력의 성찰

子曰：鄉原 德之賊也 『論語』 「陽貨」 13

공자께서 동네에서 근엄한 척 품 잡는 토호들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웃의 고통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만 유지하려는 사람들, 이익 집단들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 권력을 편승한 품 잡는 사람들에 대한 성찰이다.

##### 2)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성찰

子貢 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衛靈公」 23

자공이 물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행할 만한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께서 그것은 서(恕)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하며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서(恕)는 공자가 인류에게 제시한 황금법칙으로 현대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핵심사상이다

##### 3) 양심의 성찰

王孫賈問曰：與其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子曰：不然。獲罪於天 無所禱也

『論語』 「八佾」 13

왕손가가 물어서 답했다. 안방 아랫목 신령에게 아첨하기 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령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공자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어디라도 가서 빌고 용서받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양심을 소중히 여기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당하지 않는 몇몇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어』에 나타난 자아성찰, 관계의 성찰, 감사와 행복의 성찰, 사회적 성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성숙한 인간관계,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실현 등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다움과 인간다움은 자신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눔과 배움을 실천 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공동의 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사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며 서(恕),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화이부동(和而不同), 한 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하게 하며 군자불기(君子不器),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치며 과측물탄개(過則勿憚改), 즉 도덕적 덕성과 시민적 덕성을 포함한 역량을 가진 인간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더불어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삶을 더 낮게 가꾸려는 사람, 배움이나 일에 있어서 즐겁게 하는 사람 등은 "사람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이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드러내지만, 진정한 사람다움은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같다. 인간애와, 사랑, 자비 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으며, 상생의 윤리로 계승되어 이어오고 있다.

사람은 하늘에서 생명을 부여받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그 정체성을 부정하며 타인을 속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경우는 요행으로서 일시적으로 화를 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그 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요행으로 표현하며 사람의 삶은 본래 고통이며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가사상에서 교육이념은 인륜을 밝히는 인간교육과 균형 잡힌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수한 인간의 본질과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밝히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이념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신의 본질과 인격을 밝히고 수양하기 위한 학문으로, 인격수양으로서의 실천교육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교육과 공부는 도덕적 심사를 바탕으로 지적, 창의성,

예술적 감각, 사회적 공존의식, 현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사람다움을 지향하는 진정한 인간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방안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홀로 삶을 살지 않는다.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 지구촌은 상호의존적 관계망을 이룬다. 기후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인류재난 시대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삶의 질의 저하되어 사회생활이 제한되었다[16]

상황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합의와 개인의 행복 추구가 인류공동의 행복 추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헤쳐 나갈 지적, 사회적, 신체적, 역량과 행동에 따른 책임감이 필요하다[17].

『논어』는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사유의 기회를 준다. 이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하고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낼 수 있기에 고전을 넘어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인생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 References

- [1] J. N. Kim, "A Study on Confucius' Resil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 269-274, March 2023. DOI : 10.17703/JCCT.2023.9.2.269
- [2] 『論語 Analects of Confucius』
- [3] 『史記 History』
- [4] 『孔子世家 Confucius Sega』
- [5] S. W. Oh, Confucianism and Studying in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4.
- [6] J. G. Shin, Confucius and his grandson make history and respond to the times. human pattern, 2015.
- [7] C. H. Shin and K.S. Shim, Thought : Study of Confucius' personal maturity - Consideration of human development stages by ages of Erikson's "Psycho-social Stages" and

"Positive Psychology", oriental studies, Vol.17 No pp.137-163. 2009.

- [8] J.H. Park, 1 lesson per day: Rea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Youngsa Kim, 2020.
- [9] Widan, Widan's Analects Simdeuk. Everrich Holdings, 2007.
- [10]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Translated by H.W, Lee, Democracy and educ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Publishing, 1916. 1996.
- [11] Dewey. J,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onal process, 1933.
- [12] K.L. Lim and S. H. Lee, Competency Based Re-conceptualization of Reflection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ume 19, No. 4 117-143, December, 2017.
- [13] Y. J, Choi and Y .C, Choi, "Philosophical treatment method of Confucian cultivation theory", East-West Philosophy Study of East-West Philosophy, VOL 61, pp.377~411. 09, 2011.
- [14] J. N. Kim, and Y.J. Lim, "The Implications of Integrative Arts Therapy Approach in University Education in the Age of Human and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0, No. 4, pp. 369-375, December 2022.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4.369>
- [15] J. N. Kim, "A Study on Confucius' Dialogue in the Analects and Application to Coaching 5 Steps Models: Exploring Vale-Oriented Coachi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 Disaster, Vol. 7, No. 1, pp. 77-87, January 2022.
- [16] J. N. Kim and Y. J.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Gratitude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rona-19 Era of HUMAN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 Disaster, Vol. 6, No. 1, pp. 26-36, February 2021.
- [17] J.N. Kim, and Y.J. Lim, "The Implications of Corporate Philosophy and Shared Value for SOCIAL VALUE Creation." Public Value, Vol. 5, No. 2, 13-22, February 2020.

※ 이 논문은 2023년도 호원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